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4년 7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전월대 비 0.2% 증가

○ 2014년 7월 생산은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금융·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의료정밀과학(-9.9%), 영상음향통신(-4.2%) 등에서 감소하였고, 자동차(20.3%), 금속가공(8.4%)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하였음(전월대비 1.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0.3%)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업(5.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8%), 운수업(3.2%), 부동산 및 임대업(5.9%), 음식·숙박업(2.6%)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였음(전월대비로는 0.4% 감소).

○ 2014년 7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

— 소비자판매액지수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9%)는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3.1%),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8%)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였음(전월대비 0.3%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음(전월대비 3.5%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사무실·점포, 공장·창고, 철도·궤도 등에서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1.5% 증가하였음.

- 2014년 7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4%, 0.4%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음.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2014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4% 상승(생활물가지수 0.8% 상승)

- 2014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5(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로는 1.4%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5%), 주류 및 담배(-0.1%)와 교통(-1.9%) 등에서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4.6%), 주택·수도·전기·연료(2.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4%) 등에서는 상승하였음.
 - 2014년 8월 생활물가지수는 108.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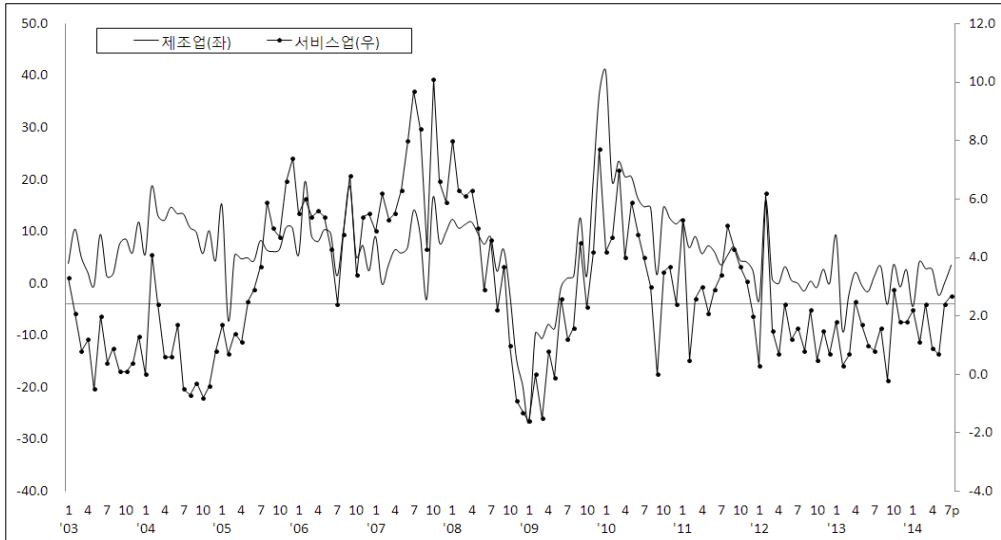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7월	1/4	1/2p	7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7	0.3	1.4	0.7	0.3	3.4	1.1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1.8	0.3	1.4	0.6	0.2	3.5	1.2
	출하	10.2	5.5	4.5	2.9	5.8	3.4	1.7	0.5	0.3	1.5	-0.9	0.3	0.1	1.8	0.4	1.3	0.2	-0.2	1.5	(-0.2)
	내수	7.3	4.0	3.7	1.5	4.1	1.0	-0.7	-1.3	-1.7	-0.7	-3.4	-2.4	-1.3	1.6	-1.1	-1.0	1.4	1.4	2.6	0.8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4.3	-1.2	-2.1	0.2	(-1.4)
	서비스업 생산	2.8	2.7	4.2	3.0	3.2	2.6	1.5	1.6	0.8	1.6	0.9	1.7	0.8	2.1	1.4	0.8	1.9	1.4	2.7	(-0.4)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2	0.7	1.2	0.8	0.9	2.5	0.7	0.6	0.3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0.4	-1.3	2.5	5.9	6.2	3.0	3.5
물가		3.8	4.0	4.3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6	1.1	1.6	1.4	1.4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8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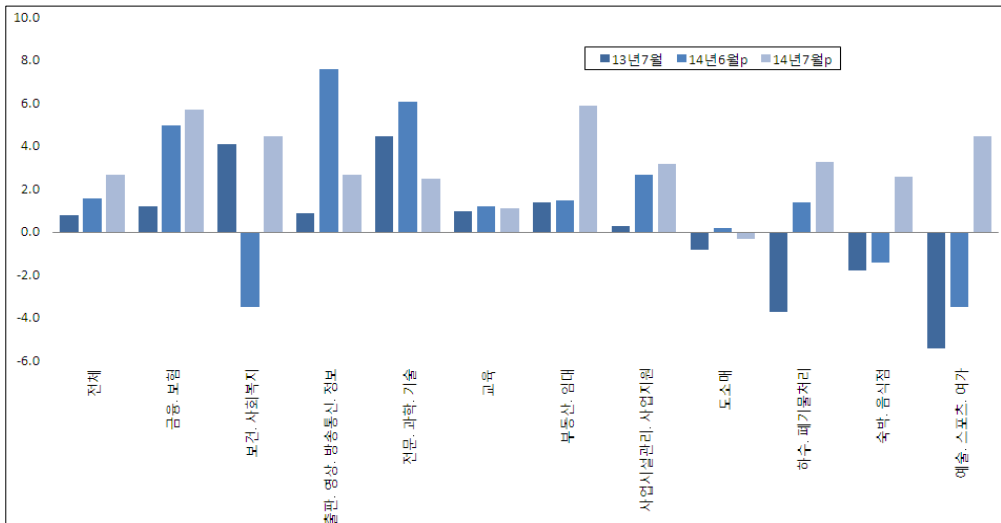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 8), 『2014년 7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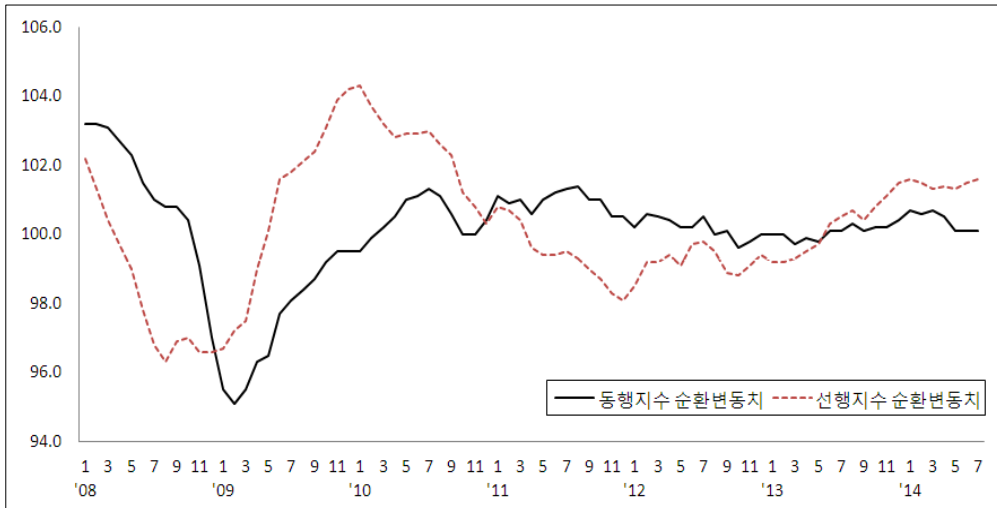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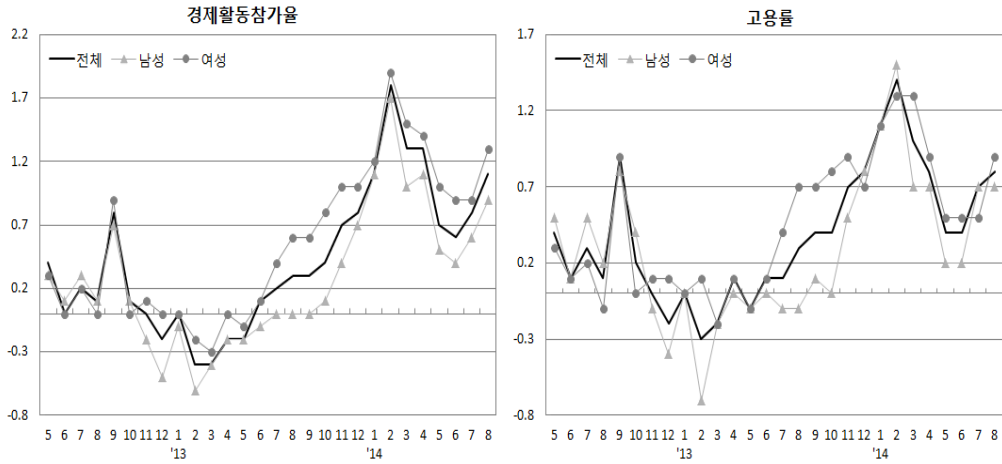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4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7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1천 명(2.7%)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497천 명으로 335천 명(2.2%) 증가하였고, 여성은 11,278천 명으로 366천 명(3.4%) 증가하였음.
- 2014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4%)과 여성(51.9%)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9%p, 1.3%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4년 8월 중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대비 0.7%p, 여성의 고용률은 50.2%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4년 8월 중 취업자는 25,8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4천 명(2.3%)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4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9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천 명(2.8%)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5,091 (0.9)	26,138 (1.1)	26,187 (1.7)	26,074 (1.8)	26,078 (2.2)	25,945 (3.4)	26,767 (2.4)	26,891 (2.2)	26,775 (2.7)
참가율	59.9	62.2	62.1	61.8	61.7	61.3	63.1	63.2	62.9
취업자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291 (1.7)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979 (2.0)	25,885 (2.3)
고용률	57.7	60.2	60.3	60.0	60.0	58.8	60.8	61.1	60.8
실업자	907	812	777	783	733	1,031	977	912	890
실업률	3.6	3.1	3.0	3.0	2.8	4.0	3.7	3.4	3.3
비경제활동인구	16,831 (2.0)	15,911 (1.5)	15,982 (0.5)	16,094 (0.3)	16,167 (-0.6)	16,397 (-2.6)	15,685 (-1.4)	15,637 (-1.3)	15,79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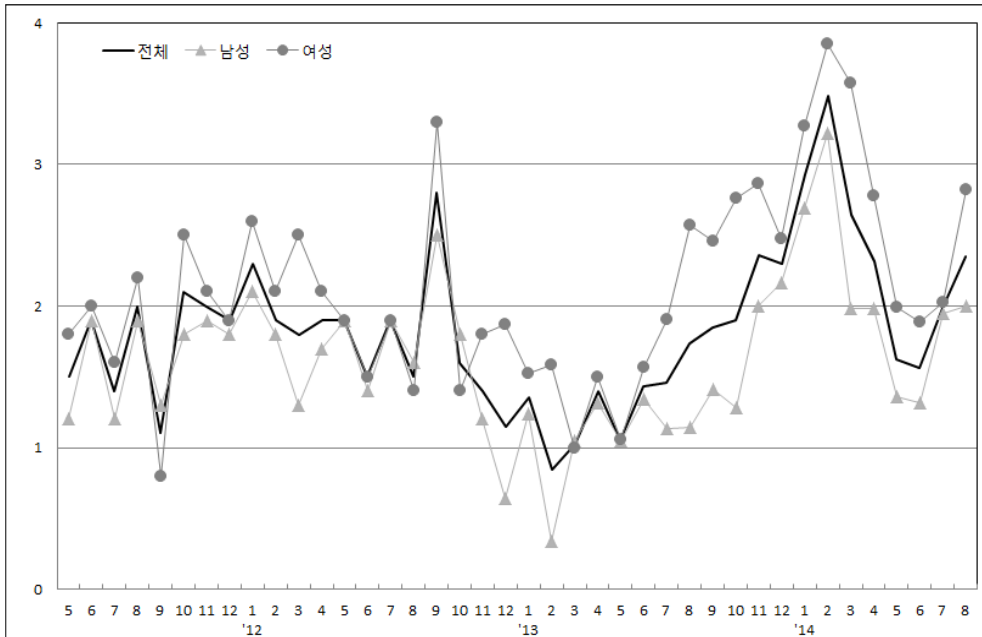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4. 9), 『2014년 8월 고용동향』.

○ 2014년 8월 중 실업자는 89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7천 명(13.7%) 증가,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3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천 명(8.2%)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 명(23.3%)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하였고, 여성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9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8천 명(-1.8%)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9천 명(-2.4%)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6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9천 명(-1.6%)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5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1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 명(-4.0%)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85천 명으로 141천 명(-3.3%) 감소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4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219천 명, 5.3%), 건설업(64천 명, 3.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5천 명, 2.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85천 명, 5.0%)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25천 명, -7.3%)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92천 명, -2.9%)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7월	8월	
전 산업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291 (1.7)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979 (2.0)	25,885 (2.3)	
농림어업	1,167 (-0.7)	1,686 (-1.6)	1,724 (1.1)	1,721 (1.6)	1,504 (-1.0)	1,179 (1.0)	1,631 (-3.2)	1,604 (-6.4)	1,596 (-7.3)	
제조업	4,156 (3.0)	4,182 (3.0)	4,152 (0.6)	4,116 (0.1)	4,245 (1.2)	4,279 (3.0)	4,319 (3.3)	4,358 (4.6)	4,335 (5.3)	
건설업	1,656 (-3.7)	1,801 (-0.4)	1,775 (0.2)	1,746 (-0.4)	1,783 (-0.5)	1,683 (1.6)	1,813 (0.6)	1,849 (3.2)	1,810 (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34 (-0.7)	5,585 (-0.2)	5,652 (0.7)	5,646 (0.7)	5,751 (2.6)	5,837 (5.5)	5,798 (3.8)	5,927 (4.9)	5,931 (5.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656 (3.1)	8,974 (1.7)	8,990 (2.5)	8,939 (2.6)	8,994 (3.6)	8,865 (2.4)	9,147 (1.9)	9,180 (1.9)	9,183 (2.7)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999 (-0.4)	3,082 (3.1)	3,102 (3.8)	3,108 (4.7)	3,054 (1.9)	3,055 (1.9)	3,067 (-0.5)	3,047 (-2.4)	3,016 (-2.9)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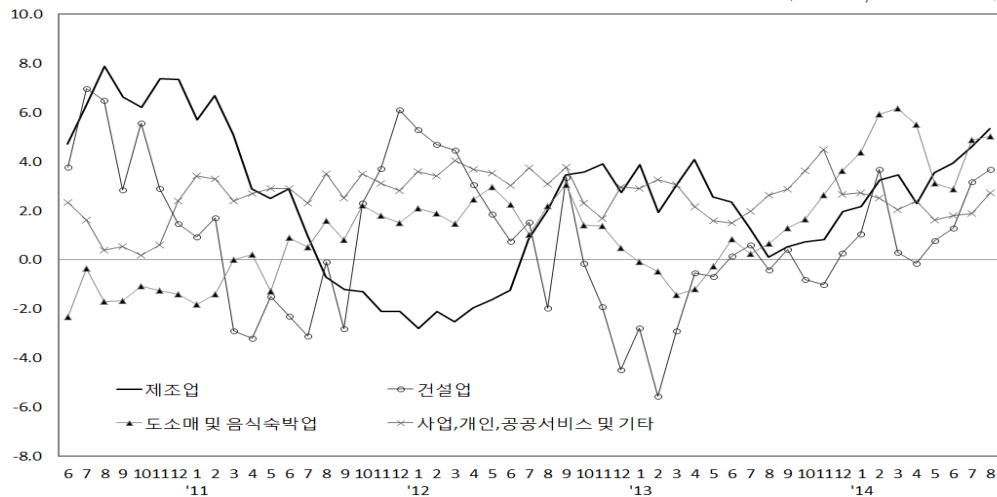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4. 9), 『2014년 8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증가폭 둔화, 임시근로자 증가폭 상승

- 2014년 8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7,108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7천 명(0.8%) 증가, 임금근로자는 18,7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6천 명(2.9%)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165천 명으로 323천 명(2.7%), 임시근로자는 5,104천 명으로 242천 명(5.0%)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507천 명으로 28천 명(-1.8%)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804천 명으로 57천 명(1.0%)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천 명 미만으로 증가하여 변동폭이 미미함.
- 2014년 8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8,5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2천 명(4.9%)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435천 명으로 136천 명(0.8%)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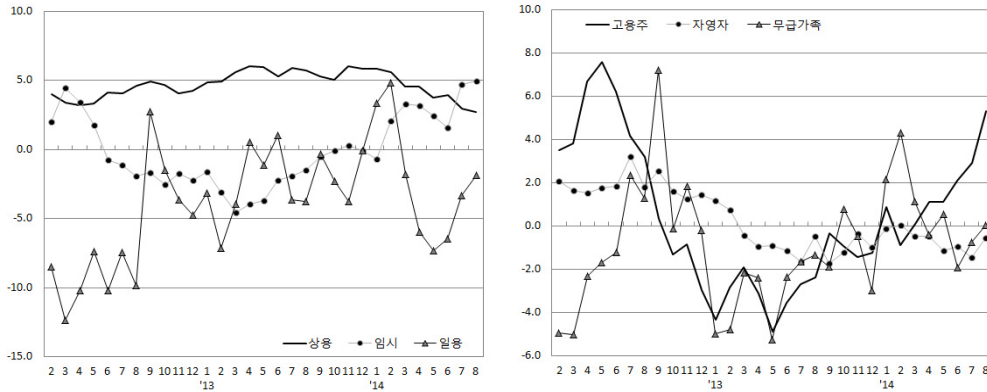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8월			7월	8월
전 체	24,184 (1.1)	25,326 (1.3)	25,410 (1.7)	25,291 (1.7)	25,346 (2.2)	24,913 (3.0)	25,790 (1.8)	25,979 (2.0)	25,885 (2.3)
비임금근로자	6,578 (-1.1)	7,006 (-2.1)	7,049 (-1.5)	7,051 (-1.0)	6,854 (-0.9)	6,597 (0.3)	6,984 (-0.3)	7,033 (-0.4)	7,108 (0.8)
자영업주	5,520 (-0.5)	5,726 (-1.8)	5,740 (-1.4)	5,747 (-1.0)	5,618 (-0.9)	5,512 (-0.1)	5,712 (-0.2)	5,732 (-0.3)	5,804 (1.0)
무급가족종사자	1,059 (-3.9)	1,280 (-3.4)	1,309 (-1.6)	1,304 (-1.3)	1,236 (-0.8)	1,085 (2.5)	1,272 (-0.6)	1,301 (-0.7)	1,305 (0.0)
임금근로자	17,606 (1.9)	18,320 (2.6)	18,361 (2.9)	18,240 (2.9)	18,492 (3.4)	18,316 (4.0)	18,806 (2.6)	18,946 (2.9)	18,776 (2.9)
상용근로자	11,379 (5.1)	11,697 (5.8)	11,848 (5.6)	11,842 (5.7)	11,925 (5.6)	11,985 (5.3)	12,175 (4.1)	12,165 (3.0)	12,165 (2.7)
임시근로자	4,762 (-3.1)	4,945 (-3.3)	4,928 (-1.3)	4,862 (-1.5)	4,935 (0.0)	4,835 (1.5)	5,063 (2.4)	5,219 (4.7)	5,104 (5.0)
일용근로자	1,465 (-4.8)	1,678 (0.2)	1,585 (-2.6)	1,536 (-3.7)	1,631 (-2.1)	1,496 (2.1)	1,567 (-6.6)	1,562 (-3.3)	1,507 (-1.8)
36시간 미만	5,563 (67.9)	4,821 (46.8)	5,083 (7.6)	8,178 (12.4)	3,395 (5.5)	3,593 (-35.4)	3,397 (-29.5)	3,578 (-1.3)	8,580 (4.9)
36시간 이상	18,099 (-9.9)	20,217 (-5.6)	19,810 (0.2)	16,299 (-3.2)	21,636 (1.7)	20,829 (15.1)	22,090 (9.3)	22,067 (2.9)	16,435 (0.8)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4. 9), 『2014년 8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15~29세 및 고졸학력 실업률 0.5%p 이상 상승

○ 2014년 8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8.4%, 0.8%p), 60세 이상(1.6%, 0.4%p), 50~59세(2.2%, 0.3%p), 40~49세(2.2%, 0.2%p) 순으로 소폭 상승함.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전 체	907 (3.6)	812 (3.1)	777 (3.0)	783 (3.0)	733 (2.8)	1,031 (4.0)	977 (3.7)	912 (3.4)	890 (3.3)
15~29세	343 (8.4)	325 (7.9)	328 (7.9)	313 (7.6)	328 (7.9)	419 (9.8)	399 (9.4)	391 (8.9)	364 (8.4)
30~39세	195 (3.3)	180 (3.0)	170 (2.9)	184 (3.1)	155 (2.6)	187 (3.2)	202 (3.4)	189 (3.2)	185 (3.1)
40~49세	143 (2.1)	146 (2.1)	131 (1.9)	135 (2.0)	114 (1.7)	155 (2.3)	167 (2.4)	147 (2.2)	153 (2.2)
50~59세	127 (2.3)	106 (1.8)	106 (1.8)	111 (1.9)	88 (1.5)	130 (2.2)	140 (2.3)	126 (2.1)	131 (2.2)
60세 이상	99 (3.4)	56 (1.6)	42 (1.2)	41 (1.2)	48 (1.4)	140 (4.4)	69 (1.9)	59 (1.6)	58 (1.6)
중졸 이하	148 (3.3)	101 (2.0)	86 (1.8)	88 (1.8)	84 (1.8)	173 (3.9)	108 (2.3)	96 (2.0)	98 (2.1)
고졸	367 (3.7)	341 (3.3)	345 (3.4)	339 (3.3)	335 (3.3)	443 (4.3)	427 (4.1)	435 (4.1)	426 (4.0)
대졸 이상	392 (3.7)	370 (3.4)	346 (3.1)	355 (3.2)	313 (2.8)	416 (3.7)	442 (3.8)	381 (3.3)	366 (3.2)
취업무경험 실업자	61	48	54	52	49	83	61	69	55
취업유경험 실업자	845	764	723	731	684	948	916	843	835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4. 9), 『2014년 8월 고용동향』.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증률 이하(2.1%, 0.3%p), 고졸(4.0%, 0.7%p)에서 증가하였고, 대졸 이상(3.2%, 0.0%p)에서는 변동없었음.
- 2014년 8월 중 전체 실업자 89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35천 명으로 104천 명 증가함.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6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2014년 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0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057천 원) 1.7% 상승함.
 - 2014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6% 상승한 3,293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한 2,644천 원을 기록함.
 - 반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9.0% 하락하여 438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한 1,351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4년 1~6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28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67천 원)대비 2.4%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 대비 2.5% 상승한 3,328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전년동평균 대비 3.2%, 초과급여는 8.7%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는 3.1% 하락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 대비 1.4% 상승한 1,391천 원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6월		1~6월	
					평균	6월	평균	6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1.0)	2,995 (5.3)	3,111 (3.9)	3,067 (4.2)	3,057 (3.2)	3,328 (2.4)	3,109 (1.7)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19 (-0.9)	3,178 (5.3)	3,299 (3.8)	3,245 (4.1)	3,242 (3.3)	3,328 (2.5)	3,293 (1.6)
	정액급여	2,341 (4.8)	2,470 (5.5)	2,578 (4.4)	2,560 (4.7)	2,566 (4.6)	2,643 (3.2)	2,644 (3.0)
	초과급여	179 (-8.4)	181 (1.0)	184 (1.7)	182 (0.1)	194 (-0.8)	198 (8.7)	212 (9.1)
	특별급여	498 (-19.3)	527 (5.8)	537 (1.8)	503 (2.4)	481 (-1.9)	487 (-3.1)	438 (-9.0)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5.1)	1,293 (6.4)	1,377 (6.5)	1,372 (7.2)	1,349 (3.5)	1,391 (1.4)	1,351 (0.2)
소비자물가지수		104 (4.0)	106 (2.2)	108 (1.2)	107 (1.4)	107 (1.2)	109 (1.4)	109 (1.7)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8	2.0	1.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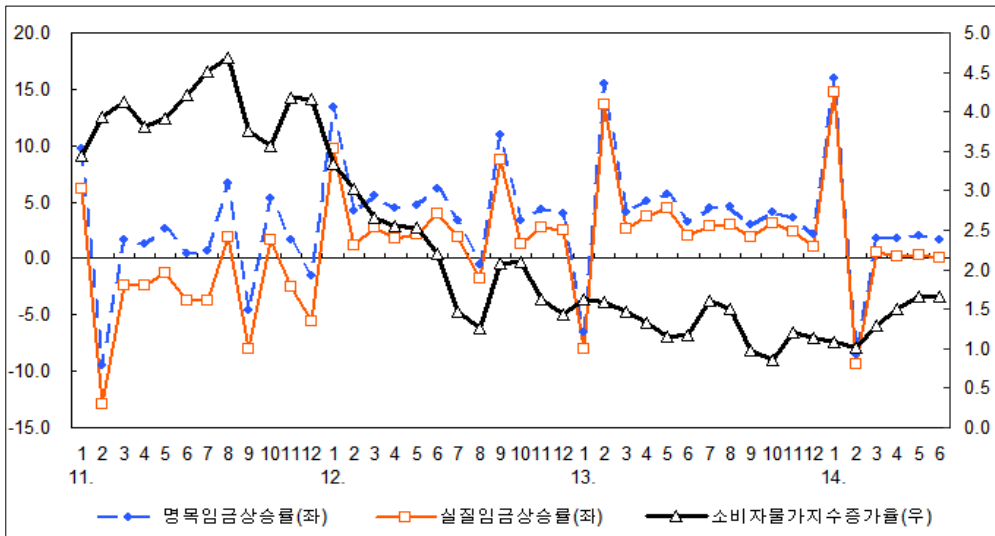
주 :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제자리 걸음
 - 2014년 1~6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4년 1~6월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1.0% 상승하였으며, 이는 명목임금상승률의 둔화폭이 컸던 것에 기인함.

◆ 2014년 6월 광업,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에서 임금 상승

- 2014년 6월 광업(-6.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2%), 금융 및 보험업(-1.0%), 부동산 및 임대업(-2.7%)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반면 여가관련 서비스업(5.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 운수업(4.3%), 건설업(3.8%), 제조업(3.1%)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6월		1~6월	
			평균	6월	평균	6월
전 산업	2,995 (5.3)	3,111 (3.9)	3,067 (4.2)	3,057 (3.2)	3,141 (2.4)	3,109 (1.7)
광업	3,470 (4.9)	3,557 (2.5)	3,614 (4.0)	4,316 (3.0)	3,501 (-3.1)	4,044 (-6.3)
제조업	3,221 (6.1)	3,371 (4.7)	3,300 (5.1)	3,256 (4.7)	3,456 (4.7)	3,357 (3.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5,346 (3.7)	7,200 (4.1)	5,499 (2.9)	7,225 (0.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2,670 (4.4)	2,673 (3.5)	2,756 (3.2)	2,789 (4.3)
건설업	2,273 (4.2)	2,414 (6.2)	2,422 (7.3)	2,397 (4.2)	2,477 (2.3)	2,489 (3.8)
도매 및 소매업	3,122 (6.1)	3,168 (1.5)	3,109 (2.7)	3,102 (2.6)	3,147 (1.2)	3,165 (2.1)
운수업	2,589 (8.2)	2,732 (5.5)	2,660 (5.7)	2,685 (4.1)	2,694 (1.3)	2,800 (4.3)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5.2)	1,772 (1.9)	1,731 (0.3)	1,690 (-15.9)	1,737 (0.3)	1,697 (0.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4.3)	3,936 (2.2)	3,977 (3.3)	3,900 (6.0)	3,878 (-2.5)	3,891 (-0.2)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125 (0.9)	4,975 (-6.2)	5,186 (1.2)	4,92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238 (2.3)	2,353 (3.3)	2,294 (2.5)	2,290 (-2.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4,092 (3.0)	4,154 (5.1)	4,314 (5.4)	4,341 (4.5)
사업서비스업	1,789 (5.3)	1,883 (5.2)	1,856 (6.0)	1,875 (8.2)	1,896 (2.2)	1,897 (1.1)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278 (5.8)	3,080 (4.4)	3,330 (1.6)	3,144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642 (2.3)	2,676 (4.0)	2,623 (-0.7)	2,699 (0.9)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282 (7.1)	2,269 (5.0)	2,371 (3.9)	2,392 (5.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210 (0.0)	2,187 (-1.7)	2,200 (-0.5)	2,232 (2.0)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6월 평균 광업(-3.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0.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0.5%)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4%)이고, 제조업(4.7%), 여가관련 서비스업(3.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9%), 부동산 및 임대업(2.5%)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6월 정액급여·초과급여 중심으로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임금 상승

○ 2014년 6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중소기업(1.7%), 대규모(5.8%)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2014년 6월 기준 상용근로자 중소기업(5~299인)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2.4%), 초과급여(7.3%)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한 2,953천 원을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6월		1~6월	
				평균	6월	평균	6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245 (4.1)	3,242 (3.3)	3,328 (2.5)	3,293 (1.6)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560 (4.7)	2,566 (4.6)	2,643 (3.2)	2,644 (3.0)
	초과급여	181 (1.0)	184 (1.7)	182 (0.1)	194 (-0.8)	198 (8.7)	212 (9.1)
	특별급여	527 (5.8)	537 (1.8)	503 (2.4)	481 (-1.9)	487 (-3.1)	438 (-9.0)
	비상용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72 (7.2)	1,349 (3.5)	1,391 (1.4)	1,351 (0.2)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 (5.9)	2,938 (3.7)	2,891 (3.8)	2,904 (3.0)	2,950 (2.0)	2,953 (1.7)
	정액급여	2,333 (5.9)	2,433 (4.3)	2,416 (4.5)	2,428 (4.2)	2,486 (2.9)	2,486 (2.4)
	초과급여	156 (3.5)	160 (3.0)	159 (2.2)	169 (1.1)	169 (6.5)	181 (7.3)
	특별급여	345 (7.7)	345 (-0.3)	317 (-0.1)	307 (-4.9)	295 (-6.9)	286 (-6.8)
	비상용임금총액	1,301 (7.0)	1,392 (7.0)	1,388 (7.6)	1,366 (3.6)	1,397 (0.7)	1,349 (-1.2)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 (3.5)	4,583 (3.6)	4,509 (4.3)	4,442 (3.0)	4,726 (4.8)	4,700 (5.8)
	정액급여	2,965 (4.3)	3,093 (4.3)	3,076 (5.2)	3,058 (5.2)	3,221 (4.7)	3,295 (7.7)
	초과급여	275 (-3.9)	270 (-1.6)	267 (-4.4)	284 (-5.6)	306 (14.7)	339 (19.5)
	특별급여	1,185 (3.4)	1,220 (3.0)	1,167 (4.2)	1,100 (-0.5)	1,200 (2.9)	1,066 (-3.0)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02 (2.9)	1,174 (2.4)	1,335 (11.0)	1,373 (16.9)

주: 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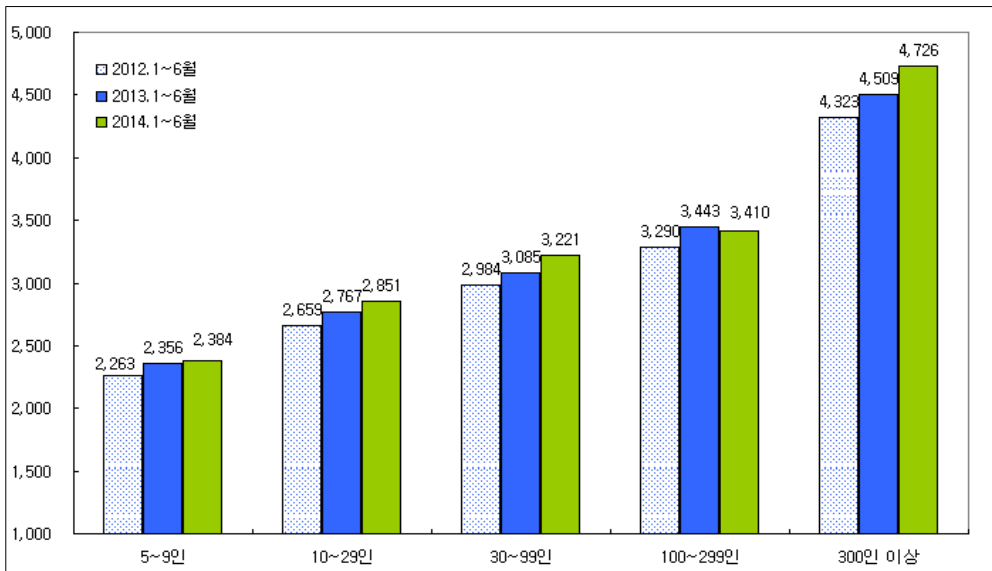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5~299인 규모의 특별급여(-6.8%)는 감소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7.7%)와 초과급여(19.5%)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한 4,700천 원을 기록하였고, 반면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3.0% 하락한 1,066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6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은 중소기업(1.4%), 대규모(4.8%)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은 2,950천 원으로 정액급여(2.9%), 초과급여(6.5%)의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0% 상승하였지만, 특별급여(-6.9%)는 하락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총액은 4,726천 원으로 정액급여(4.7%), 초과급여(14.7%), 특별급여(2.9%)의 영향으로 전년동평균대비 4.8% 상승함.
 -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1.8%p 감소하였고,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0.5%p 증가함.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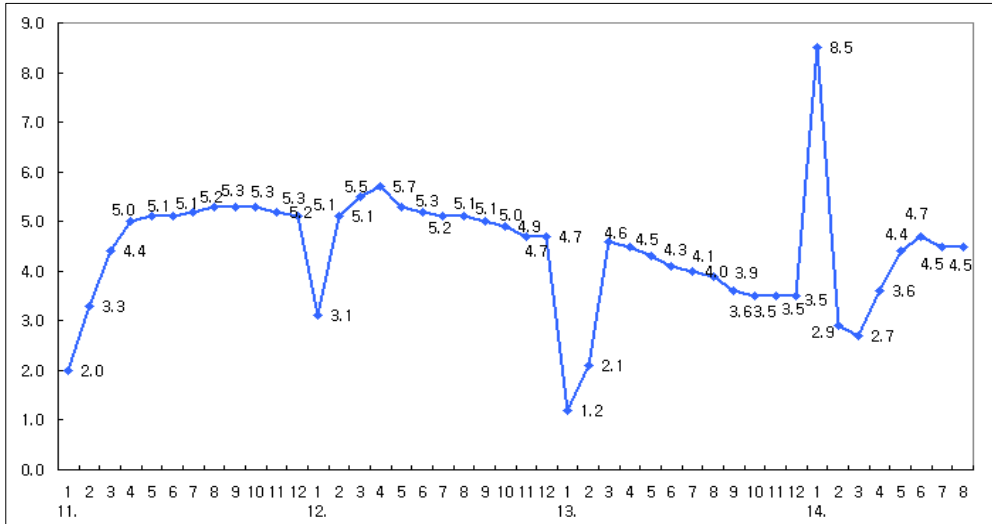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8월 협약임금인상률 4.5%

- 2014년 8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은 4.5%로 2013년 8월 인상률(3.9%)에 비해 0.6%p 상승함.

[그림 10] 협약임금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6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2014년 6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8시간(1.1%) 증가함.
 - 2014년 6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6.1시간)은 전년동월(164.3시간)에 비해 1.8시간(-1.1%) 증가함(표 9 참조).
 - ※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일을 제외한 월력상 근로일수가 19일로 동일함.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1.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2.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함.
- 2014년 1~6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4% 감소함.
 - 2014년 1~6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2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2.6시간)에 비해 2.4시간(-1.4%) 감소함.

- 2014년 1~6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6.0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0%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5.7% 증가한 13시간을 기록함.
-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6.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6% 감소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전체 근로시간	174.3 (-1.1)	172.6 (-1.0)	172.6 (-1.0)	164.3 (-4.5)	170.2 (-1.4)	166.1 (1.1)
상용총근로시간	179.9 (-1.2)	178.1 (-1.0)	179.4 (-1.2)	169.5 (-4.7)	176.0 (-1.0)	171.7 (1.3)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 (-0.8)	165.6 (-1.0)	167.2 (-0.8)	156.7 (-4.5)	162.9 (-1.6)	157.9 (0.8)
상용초과근로시간	12.8 (-5.9)	12.5 (-2.3)	12.2 (-6.1)	12.8 (-6.6)	13.0 (5.7)	13.7 (7.0)
비상용근로시간	122.3 (-0.2)	122.5 (0.2)	125.2 (3.0)	115.8 (-2.3)	116.7 (-5.6)	112.6 (-2.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6월 건설업, 운수업 등 몇몇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4년 6월 근로시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함.
 - 2014년 6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144.5시간, 4.6%), 제조업(181.7시간, 2.4%), 금융 및 보험업(154.3시간, 2.3%)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가폭이 컸으며,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63.0시간 -3.6%), 운수업(167.2시간, 0.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56.9시간, -1.8%) 등에서는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6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84.6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44.2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4년 1~6월 평균 근로시간은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6월 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148.0시간, -4.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61.6시간, -3.5%), 운수업(171.7시간, -3.3%) 등임.
 - 반면 제조업(185.2시간, 0.2%), 교육서비스업(151.7시간, 1.5%), 여가관련 서비스업(157.5시간, 0.2%) 등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1~6월 평균	6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2.6(-1.0)	164.3(-4.5)	170.2(-1.4)	166.1(1.1)
광업	185.3(-0.9)	180.6(-2.5)	180.9(-2.6)	174.8(-5.2)	178.0(-1.6)	172.5(-1.3)
제조업	186.4(-2.2)	185.0(-0.8)	184.8(-1.3)	177.5(-4.2)	185.2(0.2)	181.7(2.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4.3(-0.9)	169.0(-3.2)	169.0(-3.0)	163.0(-3.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81.7(-1.7)	173.7(-5.4)	176.5(-2.9)	170.8(-1.7)
건설업	152.5(-0.9)	152.7(0.1)	154.6 (2.7)	145.0(-2.9)	148.0(-4.3)	144.2(-0.6)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3.1(-0.3)	164.7(-4.0)	170.9(-1.3)	167.1(1.5)
운수업	181.7(0.1)	177.8(-2.1)	177.6(-2.3)	171.2(-5.2)	171.7(-3.3)	167.2(-2.3)
숙박 및 음식점업	186.6(0.2)	177.3(-5.0)	175.6(-6.9)	167.0(-15.4)	172.6(-1.7)	167.0(0.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2.5(-0.2)	152.5(-4.3)	161.2(-0.8)	154.3(1.2)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2.3(-0.1)	150.8(-5.3)	162.2(-0.1)	154.3(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92.3(-1.2)	185.0(-3.9)	188.4(-2.0)	184.6(-0.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3.6(-0.7)	154.0(-4.5)	161.7(-1.2)	155.5(1.0)
사업서비스업	173.1(0.6)	172.3(-0.5)	171.5(-0.5)	162.5(-3.6)	170.3(-0.7)	164.2(1.0)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49.4(-0.5)	138.2(-5.2)	151.7(1.5)	144.5(4.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0.7)	172.0(-1.6)	172.2(-1.0)	163.9(-4.8)	167.7(-2.6)	164.6(0.4)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0.6)	158.0(-0.1)	157.2 (0.5)	154.1(-0.8)	157.5(0.2)	155.2(0.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7.5(-1.2)	159.8(-4.4)	161.6(-3.5)	156.9(-1.8)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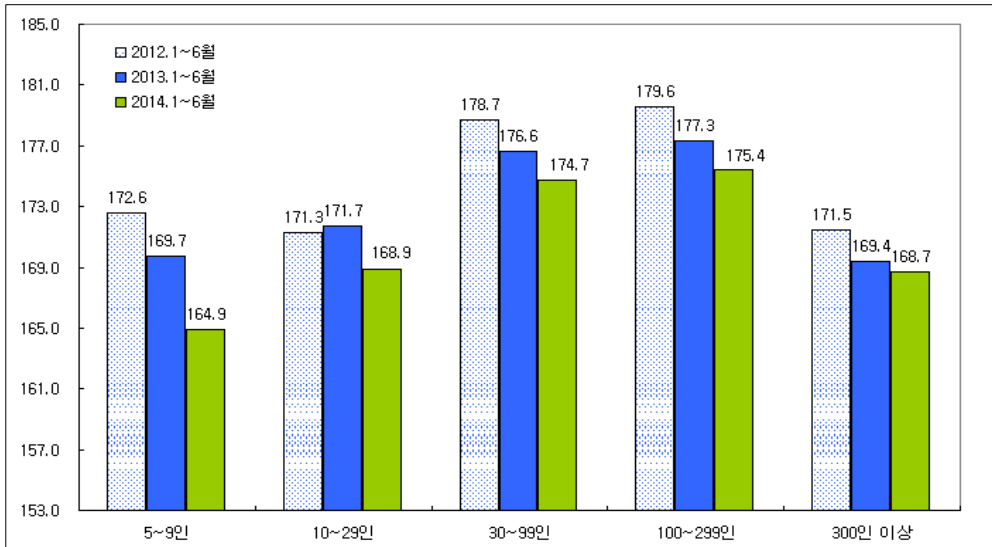
◆ 2014년 6월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감소

- 2014년 6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1.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5.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2%,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3%,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함(그림 11 참조).
- 2014년 1~6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모든 규모에서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1~6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4.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6%,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9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3.1%,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3%,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8% 감소함.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1~6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1) 전체 근로자 기준.
 2) 1~6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4년 2/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4년 2/4분기 전국가구의 소득은 재산소득(-10.8%), 이전소득(-0.1%), 비경상소득(-0.4%)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4.1%), 사업소득(0.7%)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함(실질로는 1.1%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2.9%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0.4%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음(실질로는 1.5% 감소).
- 비소비지출의 경우, 경상조세(3.7%), 연금(7.3%), 사회보험(7.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고, 이자비용 지출은 이자율 하락에 기인하여 5.4% 감소하였음.
- 2/4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음.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p)

	2013		2014			
	2/4분기		1/4분기		2/4분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040.6	2.5	4,403.3	5.0	4,152.2	2.8
경상소득	3,913.8	3.0	4,207.2	4.4	4,025.9	2.9
근로소득	2,652.9	3.4	2,903.5	5.3	2,761.5	4.1
사업소득	866.4	1.1	861.4	3.2	872.4	0.7
재산소득	20.3	-4.1	20.1	-10.6	18.1	-10.8
이전소득	374.1	5.2	422.3	1.8	373.9	-0.1
비경상소득	126.8	-10.7	196.0	20.9	126.3	-0.4
소비지출	2,403.5	0.7	2,653.6	4.4	2,477.7	3.1
비소비지출	753.5	4.1	840.2	4.8	771.6	2.4
처분가능소득	3,287.1	2.1	3,563.1	5.1	3,380.6	2.8
흑자액	883.7	6.1	909.5	7.3	902.9	2.2
흑자율	23.0	1.0p	25.5	0.5p	26.7	3.7p
평균 소비성향	77.1	-1.0p	74.5	-0.5p	73.3	-3.8p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5)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2014. 8),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 2014년 2/4분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근로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으며(1.4~8.7%), 가처분소득도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였음(1.8~6.8%).

〈표 12〉 2014년 2/4분기 소득5분위별 소득 및 지출 현황

(단위: 천 원, %, %p)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금액	증감률 (차)
가구원 수	2.54명		3.16명		3.31명		3.47명		3.60명	
가구주 연령	59.0세		48.3세		46.5세		45.8세		48.0세	
소득	1,355.4	5.0	2,771.7	1.9	3,787.6	2.6	4,983.6	3.3	7,856.4	2.4
경상소득	1,297.1	5.3	2,732.4	2.7	3,716.2	2.4	4,906.1	3.8	7,471.5	2.1
근로소득	581.6	1.4	1,743.9	6.0	2,488.7	1.7	3,628.5	8.7	5,359.9	1.9
비경상소득	58.4	-1.6	39.4	-33.5	71.5	15.0	77.5	-19.6	384.9	7.8
가계지출	1,495.9	0.1	2,407.4	3.5	3,128.6	5.2	3,728.6	0.8	5,482.2	3.7
소비지출	1,255.5	0.7	1,947.6	3.6	2,454.7	5.8	2,817.2	0.7	3,910.6	3.6
비소비지출	240.3	-2.6	459.8	2.9	673.9	2.8	911.3	1.0	1,571.7	3.7
처분가능소득	1,115.1	6.8	2,311.9	1.8	3,113.7	2.6	4,072.3	3.8	6,284.7	2.0
흑자액	-140.4	30.7	364.4	-7.1	659.0	-7.9	1,255.0	11.5	2,374.1	-0.5
흑자율	-12.6	6.8	15.8	-1.5	21.2	-2.4	30.8	2.1	37.8	-1.0
평균 소비성향	112.6	-6.8	84.2	1.5	78.8	2.4	69.2	-2.1	62.2	1.0

자료: 통계청(2014. 8), 『2014년 2/4분기 가계동향』.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8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595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8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474건)보다 121건 높은 수치임.
- 지난 8월 조정성립률 50.9%
 - 지난 8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4.6%에 비해 13.7%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 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3〉 2013, 2014년 8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8	595	567	237	98	139	229	31	198	38	63	28	50.9
2013. 8	474	428	232	149	83	127	39	88	18	51	46	64.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63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50건)보다 87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29.3%(70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70.1%(169건)를 차지함.

〈표 14〉 2013, 2014년 8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8	263	239	66	4	57	32	80	0	23
2013. 8	350	337	147	4	38	36	112	0	1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자동차산업, 고용불안 그늘

- 한국지엠 노사는 임·단협과 함께 공장별 생산물량 확보계획이 포함된 미래발전 전망에도 합의했으나, 차세대차종 생산이 대부분 1~2년 후에 시행되기에 물량부족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함.
 - 노사는 임·단협을 통해 당초 해외에서 생산하기로 했던 차세대 크루즈를 2017년부터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였으나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함.
 - 게다가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지난 8월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주간연속 2교대제 유지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측은 “교대제 전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군산지회는 사측이 1교대제 전환계획을 공식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노조 관계자는 “1교대제를 하면 1,700여명의 정규직 중에서도 유희인력이 발생한다”며 “사내하청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중·대형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부평 2공장도 마찬가지로 수출과 내수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휴무를 반복하고 있어, 노조는 단기물량 확보를 위한 사측과의 협상을 요구할 계획임.
-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조합원들의 현장 인력난에 대한 불만으로 잠정합의가 부결되었음.
 - 8월 27일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었고, 이후 지난달 3일 재교섭하여 30명의 투입과 설비투자의 확대에 추가 합의하였지만 이 또한 찬반투표에서 부결됨.
 - 르노삼성지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회사가 희망퇴직을 통해 830명을 감원하면서 노동자들이 높은 강도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힘.
 - 게다가 르노-닛산 본사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기로 한 닛산 로그 외에는 뚜렷한 신차 계획이 나오지 않고, 회사가 공장 증설이 예정됐던 부산의 공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회사 발전전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노조 관계자는 “30여명 수준의 인력충원으로는 높아진 노동강도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같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 임·단협 합의와는 달리 미래발전 전망이 부재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우려함.
- 기아자동차는 임금 단체협상에서 9월 말 착공예정인 멕시코공장에 대한 생산차종 확정 절차를 놓고 노동조합과 사측이 공방을 벌임.
 - 최근 노사교섭에서 사측은 “멕시코공장에서는 K3와 현지화 전략차만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K3를 생산하는 화성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공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함.
 - 반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K3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발함.
 - 게다가 기아차 단협 조항에 있는 “해외공장의 신설, 증설 및 해외공장 차종 투입 계획 확정 전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의견이 일치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할 차종에 대한 노사합의를 요구함.
 - 하지만 회사측은 “이사회에서 멕시코공장 설립을 의결하기 전에 지부에 통보했고, K3 생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며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만큼 단협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음.

◆ **금융노동자, 4만여명 총파업**

- 9월 3일 금융노조는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조합원 4만여명(금융노조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관치금융 철폐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임.
 - 금융노조는 지난 4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임금 6.1% 인상안과 정년연장 등의 산별 임금 단체협상 교섭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자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지난 8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종료된 뒤 총파업을 결의함.
 - 노조는 이날 △KB금융 낙하산인사 척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단 △금융기관 일방적 재편 중단 △외국계은행 구조조정 저지 △노사정 합의 준수 △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지원약속 이행 △우리는행과 예금보험공사 간 업무협약(MOU) 폐기를 요구함.
 - 금융노조 관계자는 “관치금융으로 금융산업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정부의 반노동정책으로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힘.
 - 이어서 그는 “금융산업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대화와 협상 제의에 언제든 지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와 사측이 힘으로만 억압하려 든다면 제2, 제3의 금융권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함.

◆ **홈플러스노조, 저임금 정책에 파업**

- 올해 4월부터 14차례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홈플러스노조는 시급 500원 인상을 비롯해 △감정노동수당 도입 △근속수당 8년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고, 이에 사측은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시급 150~250원 인상을 내놓으면서 결국 노조가 파업에 돌입함.
 - 지난 8월 31일 홈플러스노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합정점을 비롯해 전국 40여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조 조합원 2천여명은 29일부터 이날까지 일제히 출근을 거부하고 사흘간 전면파업을 벌임.
 - 전면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29일 지부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서울지역에서는 결의대회 후 홈플러스의 저임금 정책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주한 영국대사관과 주한 영국상공회의소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테스코에 대한 공개서한을 전달함.
 - 노조는 공개서한을 통해 “홈플러스가 노조에 제안한 시급은 내년 최저임금보다 120원 높은 수준”이라며 “테스코가 영국 구직자에게 홍보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임금과 (홈플러스의 시급은) 거리가 멀고, (홈플러스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반발함.

-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 0.5시간 계약제에 대해 사측이 7.5시간의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늘리고, 수습계약직 등의 근로시간을 0.5시간 삭감하는 대책을 내놓아 논란이 됨.
 - 노조는 “신규채용직에게 질 낮은 시간제일자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반발함.
 - 홈플러스 문제 전담의원은 “홈플러스는 점오계약제 폐지를 이유로 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진지하게 임해 달라”며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 본사 방문과 대표이사 면담, 영국 테스코 본사를 향의방문하겠다”고 밝힘.

◆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원고들은 모두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근로자과견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 재판부는 판결문을 대신해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고, 담당 공정 역시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된 점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해 시행한 점 △현대차가 ‘안전보건관리 제18장 협력업체 안전관리’,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 등 구체적인 업무표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해 해결하거나 모범사원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한 점 △현대차가 현대차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해 처우개선안을 마련한 점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에 물량을 배치하고 작업을 지시한 점을 들어 근로자 과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
 - 근로자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현대차의 주장과 달리 전 공정에 대해 불법과견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하청업체 직원들과 현대차에서 완전 도급이라고 주장하는 물류 등 다른 분야에 대해 모두 불법과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힘.

- 판결에 대해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라인 전 공정에 대해 불법과건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한 후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함.
-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결은 비단 현대차 사내하청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와 재계는 알아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사례에 대해 정부는 정규직화 정책으로 화답해야 하고, 기업들 역시 직접고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함.

◆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산입재해 확정**

- 지난달 11일 근로복지공단과 반올림에 따르면 공단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고, 이로써 2007년 시작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와 공단과의 산재인정 여부 다툼이 마무리됨.
 -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황씨와 이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고, 공단은 상고불변기간인 지난 1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음.
 - 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에서도 상고 포기 지휘가 회신됐다”며 “최종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함.
 - 산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 중증림프조혈계질환에 걸린 70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됨.
 - 반올림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인정됐다”며 “직업병 피해자 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삼성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힘.

◆ **외환은행, 지부 조합원 총회 참석자 징계**

-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는 지난달 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과 관련한 방향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려 했으나, 사측의 방해 및 강력 대응으로 무산되었음.
 - 지부에 따르면 본점에서는 임원들과 부팀장 100여명이 출입문을 막고 지부간부들과 승강이를 벌였고, 또한 다른 곳에서는 조합원 총회로 향하는 버스를 사측이 승

- 용차로 막아섰다고 밝힘.
- 한 법률 관계자는 “사측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면담을 통해 총회 불참을 강요했고, 심지어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총회 하루 전에 총회 불참 서약서를 써야 퇴근을 시키는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비판함.
- 결국 사측의 방해로 인해 오전 11시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는 3,500여명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됨.
- 이후 외환은행은 조합원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900명에 달하는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노조는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함.
 - 지부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힘.
 - 반면 사측은 업무지시 거부와 업무방해,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 징계사유이며, “쟁의기간 중 총회는 불법”이라며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시도한 직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심의하겠다”고 밝힘.

◆ 한국노총, 포스코특수강 매각 반발

- 포스코와 세아그룹이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포스코특수강과 세아베스틸의 인수합병을 발표한 이후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포스코특수강 창원 본사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임.
 - 포스코특수강노조는 결의대회에서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포스코특수강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노조위원장은 “유동자금이 1천억 원도 안 되는 세아베스틸이 1조 3천억 원의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한다면 과다차입금으로 인한 경영위기가 불보듯 뻔하다”며 “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포스코특수강 노동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일방적인 회사 매각으로 동료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며 “다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연대를 통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함.
 - 한편 포스코특수강은 지난 8월 반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 6,544억 원, 영업이익 171억 원, 당기순이익 97억 원을 기록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 3.24%, 영업이익 38%, 당기순이익 42% 감소한 수치라고 밝힘.

◆ 국제운수노련, 철도노조 탄압 ILO 제소

-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16일 국제노동기구(ILO) 경사의자유위원회에 철도노조 파업 이후 한국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제소하고 철도노조 담당재판부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함.
 - 150개국 700개 이상의 노조가 가입된 국제운수노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와 공동 제출한 제소문에서 ‘파업 시기 대체인력 투입’,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및 민주노총 본부 침탈’, ‘파업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체포영장 발부’, ‘정당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을 들어 ILO 협약과 결사의 자유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고발함.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제소문과 정부가 내놓은 답변을 검토한 뒤 권고를 내리고, 이는 ILO 총회에 버금가는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영향력을 갖게 됨.
 - 국제운수노련은 또 법정의견서에서 “파업 행위 제한을 업무방해와 연결할 경우 광의의 합법적인 파업 행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을 구금할 경우 노조 권리행사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이 ILO의 법적 견해”라고 주장함.
 - 게다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사전 승인 또는 관련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에 침입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물가수준과 가계소득, 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영역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발표함.
 -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생활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기준 생활임금액은 시급 6,582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1,372원 높음.
 -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노동자 118명이며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 노동자들은 2017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의무적용을 추진함.
 - 서울시는 그 사이 민간기업으로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권고방식을 활용한다고 밝힘.

- 한 민주노조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서울시의 모델이 진정한 생활임금으로 기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렇다”며 생활임금이라고 부르기에는 금액이 적다고 지적함.
-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부천시 사례처럼 노사민정협의회에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말함. **KLI**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